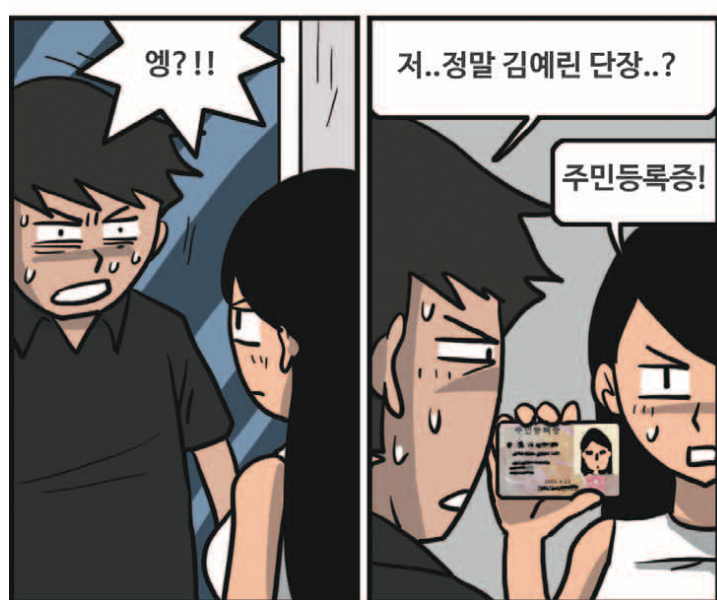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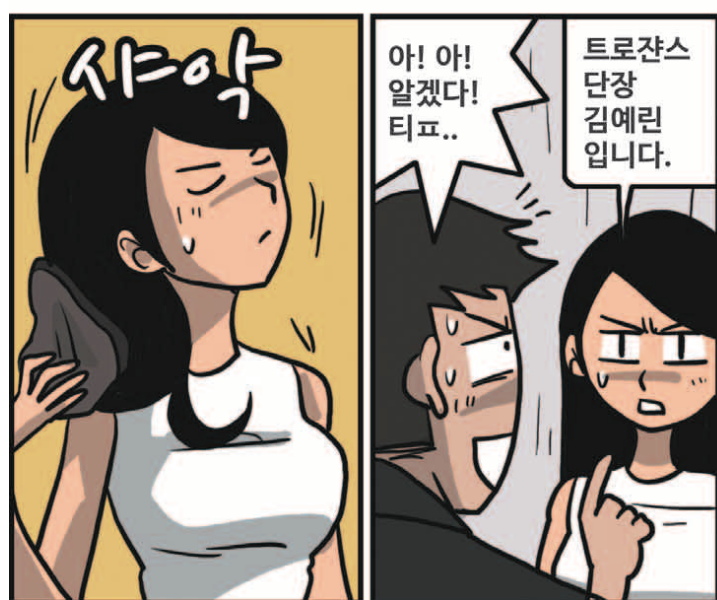


# GM 드래프트의 날

By Choi Hoon < 28 >



※ 'GM 드래프트의 날'은 'sportsdonga.com' 에서 첫 회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 Culture diary Book

### 백성의 편에서 한결같은 삶을 산 '인간 최익현'

●어린이와 청소년이 함께 읽는 마지막 선비 최익현 | 이승하 지음 | 나남

"내 목을 자를지언정 상투는 자를 수 없다.(吾頭可斷此髮不可斷)" "나도 성공하지 못할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사 500년이 여가서 종지부를 찍으려 하는데 백성들 중 힘을 합쳐 적을 토벌하고 국권을 회복함을 의(義)로 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후손들 보기에 얼마나 부끄럽겠소? 내 나이가 일흔넷이지만 죽고 사는 것에 연연하고 싶지 않소이다." 조선 말 단발령에 대한 상투를 자르지 않겠다는 상소문을 올리고, 을사조약이 체결돼 조선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자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분연히 일어나 의병을 일으켰던 '마지막 선비' 최익현의 말이다. 흔히 최익현하면 '역사 속의 보수 꼰대'나 고리타분한 유학자, 근대화를 막은 시대착오주의자 정도로 생각하기 쉽다. 좀 더 나은 평가라면 일제에 맞선 의병장 정도다. 크게 틀리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 최익현'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단언컨대 최익현은 역사 속에서 과소평가됐다. 최익현은 평생 초지일관(初志一貫)의 삶을 살았다. 한결같았다. 그 어려운 시기에 변절과 변심은커녕 자신의 굳은 신념을 끝까지 지켰다. 그 키워드는 '우국충절'이다. 늘 힘없는 백성의 편에 선 양반이었고 수신제가(修身齊家)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의 유학정신을 끝까지 지킨 '진정한 유학자'였다. 고지식하게 고종의 잘못을 지적해 두 번이나 귀향을 갔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자 의병을 조직해 무력투쟁을 벌였다. 의병활동으로 붙잡혀 대마도로 끌려가자 일본 땅에서 난 쌀로 지은 밥을 먹지 않겠다고 단식투쟁 끝에 죽음을 맞이했다. 저자는 최익현을 10년 가까이 연구했다고 한다. 최익현의 글을 쓰면서 여러 번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내린 결론, "누군가가 '우리나라 위인들 중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최익현 선생입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최익현의 삶은 나라보다는 개인, 돈이라면 지조도 자신도 버리는 세태, 권력과 영광 앞에서 초심을 내팽개치는 지식인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시대에 죽비와 같다.



### 불평등의 시대...분배의 경제를 위한 해법은?

●최진기와 함께 읽는 21세기 자본 | 최진기 지음 | 휴먼큐브

JTBC의 '썰전' tvN의 '어쩌다 어른'을 통해 빼어난 말솜씨를 보여준 인기 인문학 강사 최진기 씨가 불평등의 시대, 자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는 책을 썼다. 이 책은 자본론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주류경제학' '아날학파' '칼 마르크스 자본론' '구조주의' 등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최근 전 세계에 분배의 화두를 던진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대해 이야기한다. 피케티가 비판한 주류경제학과 사회주의 경제학의 문제점을 쉽게 설명하면서 21세기 자본이 가진 가치에 대해 독자들에게 울림이 있는 이야기를 한다. 경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성장을 떠올리지만 저자는 경제=성장이 아닌 분배라고 주장한다. 흠수저 금수저라는 말이 나오는 등 출발부터 불공정한 사회에서 분배의 문제를 경제의 중심으로 제기하면서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다. 국제공조를 통한 글로벌 자본세를 도입해 분배의 왜곡을 해소하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 이야기하듯 풀어놓은 '남한산성의 속살'

●한국인이 꼭 알아야 할 30가지 남한산성 이야기 | 안미애 지음 | 라온북

남한산성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백숙? 인조의 삼배구두절? 갯기 좋은 길? 수어장대? 성곽길? 모두 좋다. 병자호란의 아픈 역사도, 맛있는 백숙도, 아름다운 성곽길 모두 남한산성의 얼굴이자 기억해야 할 키워드다. 그런데 혹시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걸 아시는지. 그렇다. 남한산성은 유네스코가 인류공영의 보존할 가치로 인정해 2014년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 남한산성은 완전성과 진정성 그리고 예술성에서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았다. 한남루 건립 당시 사용했던 문초석이 그렇고, 국가 비상시 임시 수도로 쓸 수 있도록 종묘사직을 갖춘 게 그렇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산성마을이 그렇다. 또한 성곽을 따라 걷는 고즈넉한 길은 예술을 뛰어 넘는다. 하늘길이 있다면 남한산성 성곽길과 닮았으리라. 이 책은 남한산성의 역사와 삶을 알려준다. 이야기하듯, 함께 산책하듯 조용히 속삭이며 남한산성의 속살을 보여주고 들려준다. 역사책이라고 기보다는 이야기책에 가깝다. 쉽고 재미있다. 맛깔스럽다. 저자가 누군가 했더니 수년간 활동한 남한산성의 문화관광해설사다. 아전에서 사람들과 호흡해 얻은 노하우가 책 속에 고스란히 배어있다. 서훈남의 묘비와 할아버지 느티나무, 소원바위인 매바위 등 남한산성이 품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남한산성이 새롭게 보인다.



뉴디자이너 | 유진한 기자 haja1787@donga.com

## Biz gallery

### SBI저축은행, 31일까지 전역장교 채용

SBI저축은행이 31일까지 전역장교를 채용한다. 대상은 2016년 7월 이전 전역 예정인 장교다. 우수 인재가 많을 경우 인원제한을 두지 않고 선발한다. 지원자의 전공과 어학성적 등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채용부서 없이 합격자의 적성과 업무 적합성 등을 고려해 배정한다. 전형은 서류합격자 선발 이후 면접과 신체검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큰 역할을 해왔다. 유도, 빙상, 육상, 체조, 수영, 테니스, 탁구 등 7개 기초종목의 꿈나무 4000여 명이 참가한다. 그동안 12만 명의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했다.

### '하이원 파트너' 2기 모집

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사진)는 고객 패널 '하이원 파트너' 2기를 23일부터 6월 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동종업계 패널리스트와 청렴패널 경력자 있으면 가산점이 주어진다. 하이원 파트너에 선정된 15명은 분기별 활동주제에 대한 모니터링, 블로그를 통한 홍보활동, 정기 간담회 참석, 설문조사 등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하게 된다. 분기별 활동비와 정기 간담회 참석비를 지급하며, 우수



파트너로 선정되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 내일투어, 6월8일까지 드림세일

개별자유여행 전문 내일투어는 여행상품 할인 이벤트 '드림세일(사진)'을 실시한다. 우선 창립 21주년을 맞아 2박3일의 무료여행 체험 이벤트 '상하이 금강기 원정대 100명 모집'을 진행한다. 원정대 미션 우수 후기자에게는 '내일투어 여행상품권' 등의 경품을 추가로 증정한다. 이벤트 기간 내에 금강기 상품을 예약하면 푸짐한 추첨을 통해 홍콩 빅버스투어 금강기 1인 여행권(1명), 오사카 왕복항공권 1매(1명),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 A6000(1명), 내일투어 여행상품권



30만원권(2명), 샤오미 보조배터리(5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50명) 등을 증정한다. 예약은 6월 8일까지, 출발은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 '포시즌스 리조트 오아후 옛 코올리나' 개관

포시즌스 호텔 앤 리조트가 하와이 오아후 섬에 오픈한 첫 리조트인 '포시즌스 리조트 오아후 옛 코올리나'(이하 포시즌스 오아후·사진)가 27일 개관한다. 코올리나는 오아후 서쪽 해안에 위치한 고급 리조트 단지로 하와이의 떠오르는 관광지이다. 포시즌스 오아후는 기존 17층 규모의 JW 메리어트 이힐리나 리조트를 개보수하여 새로

오픈했다. 객실 371개와 5개의 레스토랑과 라운지, 4개의 수영장과 5개의 프라이빗 비치, 웰니스 센터, 900명 수용 가능한 실내·외 연회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매년 LPGA 대회가 열리는 코올리나 골프 클럽에 우대 고객으로 입장 가능하다.



### GKI사회공헌재단, '꿈 희망 프로젝트'

공익법인 GKI사회공헌재단은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한국잡월드'에서 백혈병·소아암 어린이를 대상으로 '꿈 희망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4~12세의 백혈병·소아암 어린이와 가족 등 200여명을 초청해 직업체험을 통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또한 꿈·희망 메시지를 담은 캐리커처 물병 제작, 위시트리 꾸미기 등을 실시한다. GKI사회공헌재단은 GKI(그랜드코리아레저)이 출연, 설립한 공기업 출연기관으로서, 관광문화체육사업, 해외공헌사업, 지역사회공헌사업, 사회공헌 공모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